

# “전문화·특성화·차별화 교육이 비전”



## 동방대학원대학교 정상옥 총장

동방대학원대학교 정상옥(鄭祥玉) 총장이 3월 2일 제2대 총장에 취임했다. 2월 20일 졸업식에서 개교 이래 처음으로 박사(5명)을 배출한 동방대학원대학교는 2005년 개교 이래 ‘동방문화 창달’이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대 총장에 취임해 학교의 새로운 비전을 내놓은 정상옥 총장을 만났다.

-동방대학원대학교가 처음으로 박사 5명을 한꺼번에 배출하고 총장님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개교 과정과 개교 이후의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감개가 크실 줄 압니다.

우리 동방대학원대학교는 동방문화창달을 위해 선비정신의 계승을 통한 온고지신으로 최첨단 정보통신과 생명공학학을 접목, 21세기를 이끌어갈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04년 11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교설립을 인가받아 2005년 3월 개교해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개교 당시 3개 학과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서화심미학과, 불교문예학과, 자연치유학과, 율령조형학과, 미래예측학과, 문화정보학과 등 6개 학과에,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의 개설돼 있습니다. 금년에 석·박사 통합과정의 편제가 완성되고 이미 승인된 학생 정원 210명도 모두 수급돼 우리 대학교는 전문대학원으로서의 제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아울러 2007년 첫 석사를 배출했고, 특히 지난 2월 학위수여전례에서 5명의 첫 박사학위를 수여해 우리 대학교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학교가 내실을 잘 다졌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대학교의 이념과 비전은 전문화되고 특성화되며 차별화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구적 시각에 맞춰서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등한시한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 400개 대학들은 나를 뛰어넘는 교육을 하고 있으나 대개가 비슷비슷한 백화점식 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에 가서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슷비슷한 학제를 가지고는 ‘우리의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독자적이고 완성도 높은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설립자 겸 총장으로서 제시하는 동방대학원대학교의 비전입니다.

현대사회는 시대가 바뀌고 사회구조가 변하면 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의 조직을 변화시켜 운영합니다. 따라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교과과정으로 우리 대학교의 최대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높은 학문적 수준과 폭넓은 강의와 유익한 학문연구가 되도록 해 타 대학과 분명한 차별화를 했습니다.

동시에 학사학위가 없는 일반 사회인들을 위해 전공과 관련된 단기의 전문과정과 특별과정 등을 설치해 폭넓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수와 학생들의 인접학문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학문연찬을 위한 학술발표지 <동방논집>과 <백악논총>을 발간했으며, ‘동방신보’를 발간해 새로운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불교예술의 한 분야인 영산재의식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한 전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주최하기도 했으며, 민족 33인중 끝까지 일제치하에서 유일하게 지조를 지킨 만해 한용운 선사를 기리는 다례제와 만해 예술제를 개최함으로써 희석되기는 민족정기를 새롭게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학의 경영체제를 기업경영 방식으로 도입해 성과주의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대의를 살리고 우리 대학교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내용의 학

측과 교육용시설부지 및 건물매입비로 9억여만원을 가배정받아 학교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생을 증원해 현재 총 정원 21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노력과 비전은 외부에서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가 주관하는 2009년도 상반기 서울장학생 선발에서도 우리 학교 학생 2명(고현숙 조주은)이 인문분야의 장학생에 최종 선발돼 2년간 장학금을 받습니다.

-사회 흐름에 발맞춰 사이버 대학의 설립을 통한 인프라 확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대학교의 가장 큰 단점과 아쉬운 점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할 인재들을 자체적으로 양성할 학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의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사이버대학을 조속하게 설립하는 것이니

## ‘동방문화창달’ 이념 구현 위한 성장동력 최대한 가동 동방사이버대학 설립 준비... 학점은행 제도 활성화

교제 규정과 교수평가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했으며, 우리 대학교 조직관리를 위한 각종 규정을 원칙에 입각해 투명하고 철두철미하게 시행하고 조직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엄중하게 실행해 왔습니다.

우리 대학교가 이렇게 발전을 거듭 한 것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교수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직원들의 마음이 혼연일체가 돼 일사분란하게 학사일정을 추진해 온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내적 기반이 확고히 다져진 만큼 외적 팽창도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성장 발전을 위한 비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 대학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자장 공간을 확보하고, 중앙도서관을 새롭게 확충하였으며, 학교 강당의 난방시설을 새로이 하고, 각 강의실과 교수연구실 그리고 총학생회의 활동 공간을 최소한 우리 대학교 실정에 맞도록 개선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와 교육, 학생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교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신생 대학교라는 역경을 극복하고 식약청과 한국학술진흥재단, 산학협력기관 등으로부터 외부 연구비를 수주함으로써 우리 대학교의 위상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대학원대학교 설립취지를 선도하는 선발주자로 자리매김 한 것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올해를 우리 대학교의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미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건물중

과, 그러므로 올하는 우리 대학교가 동방사이버대학의 설립을 준비하는 첫해입니다.

-무엇보다 각종 학술대회의 개최 및 유치를 통한 학문적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학교의 중추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신념으로 동방문화창달을 위해서는 학술대회 및 유치를 통한 학문적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9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에 대한 한·중·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것을 기점으로 우리 대학교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국내외 학술회의를 유치 개최함으로써 우리 동방문화의 우수성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리 새로운 동방문화와 예술을 정립하는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경주 기림사(祇林寺)의 역사적 삼존불 개공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삼존불의 개공불사를 맡고 있는 우리 대학교 율령조형학과 권순섭 교수가 처음 발견한 삼존불 중 본존불이 문화재위원들에 의해 통일신라 전성기의 최초 채색조불임이 확인됐고, 아울러 좌우 협시불인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복장에서 귀중한 유물이 쏟아져 나와 한국미술사를 새로 써야만 하는 경사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기림사와 우리 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최고 석화들로 자문위원회를 위촉하였고, 우리 대학교가 그 실무를 맡아 삼존불 원형복원 불사를 위해 치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사이버대학 설립 등 새 비전을 제시하는 정상옥 총장.

별로 학술발표를 실시해 이러한 기림사의 국보급 성보에 대한 구체적인 가치를 알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계몽산과 충청문화의 재검토’라는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해 우리 정신문화의 발굴과 재해석을 위한 학술회의와 가치 ‘동방학회’를 정립해 다양한 학술회의의 개최와 학술지를 발간함으로써 동방문화창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동방대학원대학교는 전문문화의 학문적 계승과 발전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성과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산학 협력 활동을 통한 실용학문의 발전과 수익모델 창출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현재의 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방사업단을 통해 그 동안 산학협력단이 체결한 산학협력과정사업들을 통해 생산품들을 판매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인 조직을 통해 판매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연치유학연구소를 활성화시켜 능력이 있는 전문연구원을 확보하고 우리 대학교 자체 실험실도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인이 애용하는 건강보조식품을 우리 대학교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인류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제2대 총장에 취임하시면서 많은 계획과 포부가 있을 줄 압니다.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교의 편제완성에 따른 학교조직의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우리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할

인재들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사이버대학을 조속하게 설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교 대학원에 이미 설치돼 있는 연구과정과 특별과정을 통한 전문연구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문화교육원과 별도로 민족학교육원의 신설을 신중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문화창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성과 특색 있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수료와 동시에 해당 민간자격증을 수여할 것입니다. 이미 미래예측분야인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민간 자격을 인증하는 민간자격시험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아 명리상담사와 명리교육강사 자격시험을 실시해 자격증을 교부했습니다. 앞으로 민간자격을 받은 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재교육에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민간자격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장차 국가공인자격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학부가 없는 단설 대학원대학의 최대 맹점인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해결하기 위해 학점은행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인력수급 및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동방웰빙’을 구축해 동방문화 전반에 관한 소식 전달매체로 삼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학교법인 동방사업단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기부문화의 일환으로 학교발전기금 조성에도 학교법인 임원과 학교 교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많은 분들이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자진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시켜겠습니다.

대담=임연태 부국장 mian1@hanmail.net  
사건=박재원 기자 wanhollo@hanmail.net

관절과 연골이 불편하십니까?

## 글루코사민 ‘파격할인’

“선착순 300분께” 총18개월분을 69,800원에 드립니다.

한일그린팜(한일그린제약) 30년만에 특별세일!!

창사 30주년을 맞은 한일그린팜(구.한일그린제약)이 하루 129원으로 관절과 연골의 건강을 대박세일을 선언했다. 한일그린팜(구.한일그린제약)은 올해 부터 동남아를 시작으로 세계무대 진출을 선언, 앞으로 전 세계인들이 한일그린팜(구.한일그린제약)의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연 것이다.

◇하루 129원으로 효도실천

한일그린팜(구.한일그린제약)의 창사 30주년 기념과 글루코사민 선연으로 인해 발표된 대박세일은 다를 바 없다. '효도세일'. 어른신들의 관절과 연골의 건강을 지키시라는 의미에서 글루코사민 6개월분, 해조칼슘 6개월분, 비타민 6개월분, 총18개월분을 선착순 300개 한정 69,800원에 판매하는데, 이는 하루 129원인셈, 제품 구입을 서둘러 볼 만하다. 한일그린팜(구.한일그린제약) 글루코사민은 ▲ 관절과 연골의 건강을 원하시는 분 ▲ 나이, 비만 등으로 관절에 무리가 오신 분 ▲ 생활환경 등으로 무릎관절을 많이 사용하시

는 분 ▲ 중, 노년기 갱년기 여성분 ▲ 관절과 연골에 영양공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대박찬스'다. 특히, 이는 어른신들에게 부담없는 가격으로 칭찬받는 선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다.



구입문의 080-223-7000  
※택배비 고객부담 2,200원  
농협 1285-02-011378 이현실

##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앞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약간 고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라스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데력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반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하면 된다. 가격은 종전 판매가130,000원에서 100인트 한정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정호

##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차움! 「천하무적」 옷가네 토종참옷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옷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웬 한반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옷이 좋은줄은 알지만 옷값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옷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인) 성기승 박사 의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 내용량 : 1박스(90cm×60cm) 2개분  
• 1병(1.5L)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 언론보도자료

-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MBC 고희은 지금 - 옷 안타는 참옷 최초 개발
- KBS 고희은 아침 - 참옷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성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옷 날 걱정 없는 참옷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옷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옷 안타는 참옷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옷 부작용 걱정, 난 안타!
- 2003.11 스포츠조선 - 무작용 없는 옷,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참옷의 약이 되는 옷 건강법
- ▶2006.8 20 KBS 성심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옷 참옷
- ▶2006.10.31 KBS 무한지대류 - 참옷

### 구입엔 꼭 확인을...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난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의 : 옷가네 참옷농원  
무로전화 : 080-838-3366